

문화특집



김제농기센터, 서울 코엑스

국제차 문화대전 참가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4회 국제 차 문화대전에 참가하였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시성용기(대표 안시성), '하소백련'(대표 유월영), '진계정이들'(대표 박광철)이 참가하여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관내 우수 수공예품과 차(茶)를 전시, 홍보, 판매하였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된 108년 된 가마에서 나온 생활용기와 청화면소제 부근에서 생산된 연잎차, 수공예전문기들이 만든 도자기, 짚풀공예, 압화, 한지공예, 천연염색 등이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행사부스를 찾은 시민들은 멋스러운 수공예품에 감탄을 자아냈으며 적극적인 호감을 나타냈다.

김제시는 이번 행사에서 관내 우수 특산품을 알리는 홍보 전단지과 지평선 쌀과 누룽지를 배부하였다.

양운영 유통식품과장은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내 고장의 우수 수공예품을 알리며 뿌리 깊은 농경문화의 유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소중한 기회로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교월동 탄소포인트제 홍보

김제시 교월동(동장 박상문)은 전기 사용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시정안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란 일반 가정, 상업시설,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전기 사용량의 감축분 만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제는 정산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전기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감축률이 5%이상일 때는 5,000포인트, 10%이상일 때는 10,000포인트가 부여되며, 포인트는 현금 또는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하여 직접 회원가입을 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에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산파출소, 아동안전지킴이집

4개소 방문·대표 노고 격려

김제경찰서(서장 임상준), 금산파출소(소장 임진욱)는 지난 10일 관내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집 4개소를 방문하여 아동안전지킴이 집 외부표지판 등 시설물 점검 및 사업장 대표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아동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적극 참여 공감대 확산 및 신고자 역할 수행을 당부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수호천사 행동 수칙에 대해 경찰의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금산면 관내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4개소와 수호천사한 분, 금산면장과 농협조합장을 지내셨던 퇴직 공무원 한 분, 前 마을 이장이셨던 분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정하여 경찰과 함께 금산면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아동대상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참석자들은 2시간여에 걸쳐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함께 신청 부지와 향후 대응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정읍시, 한국문학관 유치 나서

김생기 시장 등 참석 간담회 개최... 향후 대응 방법 논의

정읍시가 한국문학의 중심이 될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적극 나섰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8일 김생기 시장과 나종일 전 우석대 총장, 한국문인협회 전북지부 안도 지부장을 비롯한 문학계 인사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시간여에 걸쳐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함께 신청 부지와 향후 대응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는 "정읍이 국립한국문학관 최적의 위치다"며 부전동에 위치한 내장산 문화관광 부지를 국립한국문학관 우선협상 대상 부지로 신청했다. 이 부지는 지난 2010년에 조성돼 진입도로(4차선)와 상·하도, 전기, 통신, 변전시설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데다 호남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 국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또한 인근에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

관 농경문화체험관 등 다수의 시설이 자리해 있다. 시는 특히 "정읍은 문화적 가치 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정읍은 현존하는 최고의 가요인 백제가요 '정읍사'와 가사문학의 효시로 꼽히는 정국인의 '상춘곡'의 고장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금지타인 신동엽 시인의 시 '겉데기는 가라'와 소설가 박경리의 '토지' 등 수많은 현대문학의 주 소재인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고 '엄마를 부탁해'의 신경숙 작가와 소설 이후 가장 탁월한 서정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경만 시인 등 다수의 문학가를 배출한 바이다.

또한 세계 최고 급속 활자본인 고려시대의 '불조자사삼계요절'을 정리한 고려말의 승려 백운화상인 경한스님이 고부 출신인데다 조선시대 대표 민간도서 출판물인 '태인 방자본'을

탄생시킨 인쇄·출판의 성지이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 낸 기록보존의 성지이다.

김생기 시장은 "정읍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모든 부지 기반조성이 완료돼 60여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즉시 건축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내장산국립공원 지척에 위치한 완벽한 대상 부지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한국문화 작품 속 정서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위대한 문화 역사적 콘텐츠의 보고인 정읍에 국립한국문학관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대응 전략에 반영, 7월 최종 선정 시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식)는 젊고 우수한 농업인력 유입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공개 모집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젊은 영농정착이 가능한 대상으로 하여금 미래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현역 임영대생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를 선정하여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이다.

신청자격은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있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7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다만 가족이 같은 사업장에서 후계 농업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복무 중인 경우와 대학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영농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구비하여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담당(540-4512)으로 제출하고 시는 영농정착의 욕, 학력 및 교육훈련 등 5개 부분을 평가기준에 의해 40점 이상인 사람을 추천하면 병무청에서 시군별 배정인원을 통보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이평면서 손 모내기 체험

모내기철을 맞아 이랑기를 이용한 기계식 모내기가 활발한 가운데 매년 전통 손모내기 체험행사를 하는 곳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이평면 세곡마을에서 사회적기업인 유기농비건(대표 채운자) 주관으로 전통 손 모내기 체험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김생기 시장과 시 공무원(지역공동체육성과), 서울의 녹색소비자연맹, 정읍 자이원, 나주 부활의 집 회원 등 8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손 모내기 시연과 체험 그리고 유기농 뷔페식 점심 식사 등을 함께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들도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 시장은 현장에서 "맛있는 전통 문화인 손 모내기를 재현하고 건강한 시골 밥상까지 맛 볼 수 있는 유익하고 뜻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주관 관계자와 참여자들을 적극 격려했다.

한편 유기농비건은 유기농쌀과, 조청, 쌀과자 등 유기농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유기농 땅파 먹거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10년 째 손모내기 체험 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와 유유누에마을이 연계해 추진하는 뽕잎 죽서도토리묵 만들기 체험은 큰 인기를 끌었다.

부안 참뽕연구소 힐링체험 호응

16일까지 다문화가족·학생 등 대상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신)는 변산면 청정 누에특구에 위치한 참뽕연구소에 힐링체험장을 신축하고 지난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다문화가족과 학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참뽕힐링체험이 탐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경 해풍을 머금고 자란 부안 오디와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오디 수확, 오디 잼 만들기, 뽕잎 천연비누 만들기, 오디 염색 체험, 뽕잎 다도체험 등 힐링체험과 참 뽕 공동농장에서 생산되는 오디가공품을 이용한 오디 잼 샌드위치, 오디 즙 슬러시 등 시식체험 등으로 이루어졌다.

체험객의 신청을 받아 맞춤형으로 실시된 이번 체험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와 유유누에마을이 연계

해 추진하는 뽕잎 죽서도토리묵 만들기 체험과 오디 고풍 잼 만들기도 사법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

김모 씨(42·전주시 중화산동)은 "부안 오디는 열매만 먹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체험이 즐거웠다"며 "부안오디 체험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에타운과 청소년수련원, 유유누에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힐링체험장에서 재밌고 신나는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참 뽕 6차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Gan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sets, along with text describing the product and its benefits.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